

# 총파업특보 13호

## “여의도 사옥 팔아라” 고영주의 수상한 개입

### 정체불명 업자 소개하고 지속적 압력 행사

2016년 2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백중문 당시 MBC 미래전략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MBC 여의도 사옥 부지를 사겠다는 유능한 사업가가 있으니 만나보라는 내용이었다. MBC 현안 처리를 위한 단순 소개였을까? 그렇지 않았다. 이 전화는 시작에 불과했다.

고 이사장의 지시를 받은 백중문 본부장은 곧바로 문제의 사업가 하모씨에게 전화한 뒤 담당 실무자인 자산개발국장을 대동한 채 여의도 콘래드 호텔로 하씨를 찾아갔다. 고 이사장이 전화를 한 지 불과 한 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경남 지역 신문사의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한 하씨는, MBC 여의도 부지를 4800억 원에 자신에게 팔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여의도 사옥 부지에 대해서는 외부 사업자와 MBC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개발로 이미 가닥이 잡힌 상태였다. 더구나 수천억 원대 회사 자산을 고영주 이사장의 소개만 믿고 공개입찰 절차도 없이 매각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후 MBC 자산개발국은 하씨에게 이미 이사회의 추인을 받은 공동개발 입장을 갑자기 변경하기 어렵고, 특히 공개매각 절차 없는 수의계약은 사규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 수천억 원 자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라” 압력

지극히 상식적인 대응이었지만, 이에 대한 고영주 이사장의 반응은 비상식적이었다. 2016년 6월 개최된 12차 방문진 이사회에서, 고 이사장은 부지 매각을 강요한다. 매각보다 개발이 적절하다는 부동산 전문 컨설팅업체 두 곳의 분석 결과도 ‘실패할 수 없다’고 치부했다. “자산개발국이 부서 일거



리를 만들기 위해 개발하는 것”이라며 실무자를 비아냥거리고, “4800억원을 준다는데 수의계약이 안 된다는 건 팔기 싫다는 거냐”며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을 강권했다.

다섯 달 뒤인 11월 20차 정기 이사회에서도 재차 “일본이 20년 장기침체에 들어가면서 부동산 값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 번 검토해보라”며 사실상 가닥이 잡혔던 여의도 사옥 개발 방침을 뒤집으려고 떼를 쓴다. 보다 못한 다른 방문진 이사들이 결정을 미룰 일이 아니라고 제지할 정도였다.

#### 뭘 믿고 밀어줬나? 최소한의 검증도 안했다

고 이사장이 철썩같이 믿은 하씨의 말들은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하씨는 한 대형건설사를 사업 파트너로 내세워 1조원 지급보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건설사 담당자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하씨가 세운 ‘여의도프로젝트’라는

자본금 1천만원짜리 회사 사무실은 문이 잠긴 상태였다. 동기에 하씨의 이름은 없었고, 동기상 대표이사는 “명의를 필요하다고 해 빌려줬다”고 밝혔다. 하씨가 ‘대표’ 명함을 들고 다닌 지방지에선 “수년전 사업상 필요로 명함만 파줬는데, 아직도 그 명함을 들고 다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고영주 이사장은 하씨와의 관계에 대해 “MBC 사옥을 매입하겠다며 찾아왔으며 좋은 조건의 사업가라 임원들에게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조원 지급보증 등 하씨의 주장을 확인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내가 그런 것을 왜 해야 하나”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백중문 당시 본부장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오정우 당시 본부장은 “방문진에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해서 백 본부장을 통해 소개받았다”며 “고영주 이사장이 좀 세계 접근했지만, ‘압력’을 물리쳤다”고 설명했다.

# ‘상식 무시’ 고영주의 황당 발언...뒤늦은 발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등 상식 밖의 발언을 해온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 MBC 여의도 사옥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도 그는 이해하기 힘든 발언을 쏟아냈다. 그것도 사적인 자리가 아닌 방문진 정기 이사회에서였다.

“4800억 원 ‘일시불’로 준다더라”

“현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은행에서 1조원 보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중도금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일시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4800억 원을 일시불로 한번에 주겠다.”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다면 일개 개인 사업가가 ‘1조원의 보증을 받고 4800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니 최소한 의심이라도 해야 할 것이다. 구여권 추천 김광동 이사조차 “제 평생 4800억 원이라고 하는 현찰을

가지고 있다거나 내놓은 일은 아직은 (보지 못했다)”고 의아해 할 정도였다.

“수의계약 안 될 이유 있나”

“4800억 원에 일시불로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수의계약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그냥 팔기 싫다는 이야기지요.”

방문진 실무진도 ‘수의 계약은 MBC 규정 상 안 된다’고 설명했지만 고 이사장은 막무가내였다. 그러나, 공개 입찰 없이 정채도 불분명한 사업가와 수의계약을 맺는 건 위험하고 비상식적인 일이다. 정부가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추진할 경우 그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상한선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으로 제한하는 걸 고려하면, ‘공영방송의 수천억 원대 자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라’는 건 얼토당토않은 발상이다.

무조건 매각 요구?

“MBC가 방송으로 수지가 안 맞으니까 건설업에 진출을 하자, 이런 취지입니까”  
 “그 돈(여의도 매각 대금)을 가지고 임대할 다른 건물을 사면 어떻습니까”  
 “자산개발국의 입장으로 따지면 당연히 여기에서는 개발해야지요. 그래야 자산개발국이 앞으로 5년 동안 할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일본의 사례를 한 번 연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일본은 20년 장기침체로 들어가면서 부동산 값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이쯤 되면 ‘묻지마 매각 중용’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건설업을 하자는 거냐’며 따지다가도 ‘일단 여의도 사옥을 팔고 임대할 다른 건물을 사자’고 한발 물러설 정도로 고 이사장은 매각에 집착하고 있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자문 결과에 따라 개발로 가닥이 잡혔는데도 고 이사장은 회사 자산 운영 업무의 중요성을 ‘밥그릇 챙기기’ 정도로 폄하했다.

## 이제 와서 모르쇠, 군색한 변명만

고 이사장은 지난해 두 차례 방문진 정기 이사회에서 하 씨와 ‘4800억원 일시불’ 거래를 맺어야 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하지만 11일 방문진 회의를 앞두고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고 이사장은 하 씨와의 친분 관계부터 부정했다. ‘좋은 제안이 들어 와서 만나준 것 뿐’이라는 것이다. 하 씨를 백종문, 권재홍 두 사람에게 소개한 것 역시 ‘좋은 조건을 제시하니 한 번 알아보라’고 했던 거라고 해명했다.

그런데, 의문은 더 커진다. 방문진 이사장이 잘 모르는 사람의 제안을 위해 그렇게 이례적으로 동분서주해야 했는지, 부동산 관련 소송을 많이 다뤘다는 고 이사장이 ‘1조원 보증, 4800억원 일시불 지급’ 같은 허황된 말을 그대로 믿었는지, 무엇보다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진행될 경우 하씨가 엄청난 특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는지 고 이사장 스스로 해명해야 할 것이다. 하씨는 ‘당시 거래가 이뤄졌다면 부지 개발을 통해 최소한 3천억 원 이상의 이윤을 얻었을 것’이라고 주변에 장담을 하고 다녔다.

# 고영주 등에 업고 MBC를 놀이터로

## “백종문 30분만에 찾아왔다”

하씨는 “백종문 본부장실에 수차례 연락을 부탁하는 메모를 남겼지만 전화가 오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고영주 이사장이 전화를 해 주자 곧바로 백 본부장이 전화를 해 왔다. 바로 약속을 잡고 30여분 만에 만났다”고 말했다. 자산개발국 실무진으로부터는 일관되게 매각 제안을 거부당하고 푸대접을 받았지만, MBC 임원실은 자기 집 안방처럼 들락거렸다. 모두 고영주의 뒷배 때문이었다.

## 고영주와의 친분 과시

자산개발국 실무진들을 만난 자리에서 하씨는 “고영주 이사장의 친필을 본 적 있냐”며 고 이사장이 적어준 백 본부장의 전화번호 쪽지를 자랑하듯 보여줬다. 자신이 “고 이사장이 하늘처럼 여기는 사람들과 친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친한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백종문 본부장이 평소 자신에게 전화를 자



주 걸고 노조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는 이야기까지 한다”는 식으로 임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 타고 임원실 돌아다녔다”

고영주의 소개는 그 자체만으로 MBC를 드나드는 ‘프리패스’가 됐다. 하씨는 “MBC에 가면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에 올라가 임원실을

두루 돌아다녔다”고 말했다. 자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임원에게까지 협박성 발언을 던졌다. 역시 내세운 건 이사장이었다. 업무 담당자였던 오정우 당시 미디어본부장은 “하씨가 ‘왜 팔지 않느냐, 이러다 다친다. 방문진 얘기를 듣지 않으면 인사에 불이익을 받을 거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부사장 방에 앉아 실무자 소환

권재홍 부사장 방에 앉아 실무자를 소환하기도 했다. 김윤섭 자산개발국장은 “권재홍 당시 부사장 방에서 올라오라는 연락을 받고 가보니, 하씨가 임원들과 함께 앉아있었다”고 말했다. 오정우 당시 미디어사업본부장은 이 부사장실 회동이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된 만남이었다”고 기억했다. “방문진에서 중요한 사람이라고 소개했는데 왜 그 사람에게 팔 수 없는지 만나서 설명하라고 해서 부사장실에서 실무진을 부른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 “부당한 압력이었고 명백한 월권이었다”

집요한 압박은 자산개발국으로 직접 내려왔다. 김윤섭 자산개발국장은 사업가 하씨를 작년 2월쯤 콘래드 호텔에서 처음 만났다. 하씨는 처음부터 “자기 뒤에 누군가가 있다”고 강조하며 여의도 사옥 부지를 현금 4800억 원에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조건은 수의계약이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이미 개발을 하기로 이사회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매각을 하려면 또 다른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매각을 하더라도 수의계약은 안 된다”고 거절했다. 또 방문진 이사회에 출석해서도 “대한민국에서 한 방에 4800억 원을 내는 사업자는 없다”고 못박았다. 상식적이고 원칙적인 대응이었지만 돌아온 건 협박과 인신공격이었다.

## “방문진 이사장이 이런 적은 없었다”

고영주 이사장은 ‘5년 동안 자산개발국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 매각 대신 개발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아냥거렸다. 자리보전을 하려고 매각을 막고 개발을 고집한다는 뉘앙스였다. 김 국장은 자신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일단 “드릴 말씀은 많은데 참겠습니다”며 대화를 마무리 지었다. 김 국장은 이 ‘드릴 말씀’이 “거간꾼 때문에 자꾸 매각하라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었다고 최근 밝혔다. 김 국장은 당시 20분 정도 보고를 하려고 정기 이사회에 들어갔지만 고 이사장이 ‘여의도 사옥을 팔고 임대할 다른 건물을 사는 것은 어떠냐’는 황당한 제안까지 하는 바람에 한 시간 넘게 논쟁을 이어가야 했다. 김 국장은 “방문진 이사장이 자산 처분 논의를 이렇게까지 주도적으로 개입한 일이 없었다”며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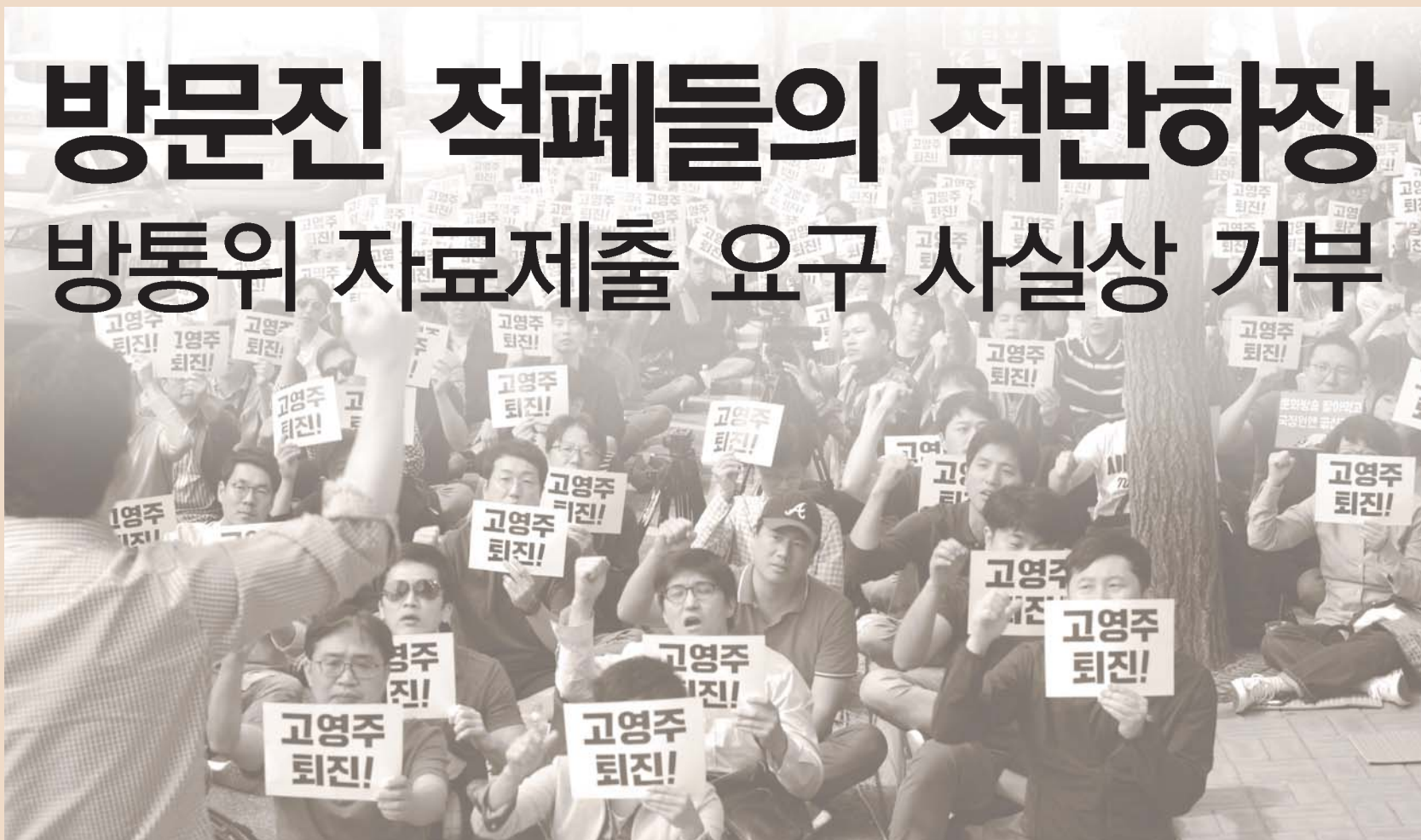
례적인 ‘압력’이었다고 말했다.

## ‘인사 불이익’ 협박성 발언까지

실무를 담당했던 오정우 당시 미디어사업본부장 역시 ‘고영주 이사장이 조금 세계 접근했으며 월권이 압력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방문진 이사장이 소개했다는 이유로 일개 부동산업자인 하씨를 중요 인사로 대해야 했으며, 하씨가 수차례 자신을 찾아와 “이러다 다친다. 왜 안 파냐. 방문진 쪽 이야기를 안 들으면 인사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라며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오 전 본부장은 “질차도 안 났고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면, 나중에 누구든지 책임을 묻는 부분인데 어떻게 쉽게 결정을 하나. 판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은 못한다. 공개 입찰해야 한다”라며 하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당시 실무진들은 여의도 사옥 처리 방안을 매각으로 뒤집고, 더 나아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라는 말도 안 되는 집요한 압박에 시달렸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압박이었다고 여기고 있다. 실무진의 인격을 모독하고, 인사 불이익까지 언급하며 추진하려 했던 여의도 사옥 매각 추진의 배경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 방문진 적폐들의 적반하장 방통위 자료제출 요구 사실상 거부



방송문화진흥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방문진이 주무관청인 방통위의 검사·감독권을 부정하고, 김장겸 사장의 방패막이자 MBC 파괴의 공범임을 스스로 선언한 셈이다.

방문진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방통위의 검사·감독권에 의한 자료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며 통상적 범위의 자료만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통상적 범위’에 국한하겠다는 것은 법인카드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회의록 기록 등 불리한 자료는 제외하고, 맹탕 자료만 내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김광동 이사는 임무혁 사무처장에게 ‘법인 카드나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자료냐’고 물었고, 임 처장은 ‘국회에 제출하는 통상적인 자료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야권 추천 이사들이 “알아서 민감한 자료는 다 빼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지만, 고영주 이사장 등은 의결을 강행했다. 이들은 당초 자료 제출 요구를 일체 거부하는 안을 의결하고자 했으나, 같은 구 여권 추천 이사인 김원배 이사마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통상적인’ 수준의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 적법 절차 무시한 ‘몽니’

방문진의 이 같은 결정은 이미 예고돼 왔다. 방통위는 지난달 22일,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에 착수하면서 방문진 및 MBC와 관련된 최근 5년간의 자료를 29일까지 제출하라고 요

구했지만, 방문진은 온갖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뤄왔다. 방통위는 오늘(13일)까지 자료 제출 기한을 연장해줬지만, 방문진은 결국 방통위가 검사·감독 권한이 없다는 자의적인 법률 해석을 하며 핵심적인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이다.

방문진이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한 이유는 명백하다. 이 자료들이 공개되면 방문진이 MBC 경영진이 저지른 각종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조장한 물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방문진 이사들의 개인적인 비리와 위법행위들이 드러날 가능성도 높다. 결국 김장겸 사장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해임 사유를 은폐하고자, 방통위의 정당한 법적 권한까지 부정하면서까지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 자신들 안위에만 급급

현재의 방문진은 MBC 관리감독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지 오래다. 오히려 MBC 파괴의 공범일 뿐이다. 지난 10년간 MBC가 자행한 왜곡·편파 방송을 눈감았고, 부당징계·부당전보 등 노동 탄압을 되레 부추겼다. 현 김장겸 경영진을 비호하기 위해 방문진법에 명시된 의무 사항인 ‘경영평가보고서’마저 폐기했다. MBC 총과업이 40일 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 해결은커녕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일말의 양심조차 남지 않은 방문진 이사진들은 단지 청산의 대상일 뿐이다.

## 방통위, 좌고우면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

방문진의 꼼수와 버티기에 방통위의 검사·감독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다. 지난달 29일로 예정됐던 자료 제출 시한을 연장시켜줬지만, 방문진은 오히려 방통위의 법적 권한 자체를 부정하고,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했다. 보름 가까이 아까운 시간만 버린 셈이다.

그 사이, MBC는 더욱 처참하게 망가졌다. 추석 연휴 MBC는 특집 방송은커녕 정상적인 편성도 못할 지경이었다. 잇따른 결방·불방은 물론, 듣도 보도 못한 ‘녹화뉴스’까지 등장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 간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방문진이) 법에 규정된 방문진의 책임과 의무는 방기하면서 권한만 누리려 한다”며 “신속하게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구 여권 추천으로 임명된 김석진 상임위원은 “언론사에 대한 여러 행정절차는 무리가 없도록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려줄 이유도 여유도 없다. 1분, 1초가 시급하다. 방문진과 현 MBC 경영진은 사태 해결의 능력도, 의지도 없음이 명확하다. 오로지 자신들의 자리 지키기에만 급급한 것이 확인된 이상, 방통위는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 즉시, 검사·감독권을 철저히 하고 엄정하게 행사해 부적격 이사들을 해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방문진과 마찬가지로 직무유기의 주체가 되는 동시에, 공영방송 MBC 몰락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고영주, 남은 건 해임뿐이다

## 무책임과 편파의 '불량' 이사장을 당장 해임하라



MBC를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 아예 팔아넘기려고 했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은 국민의 자산, 공영방송 MBC의 소중한 재산을 검증도 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부동산 업자에게 갖다 바치려다 실패했다. 돈 한 푼 낼 능력도 없는 사업자에게 수천억 원의 자산이 넘어갈 뻔한 것이다. 고 이사장은 지난해 6월 16일 정기 이사회에서 “4800억 원을 일시 지급한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며 “은행권으로부터 1조 원의 지급 보증이 돼 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쳤다. 하 모 씨라는 부동산 업자의 주장을 그대로 읊은 셈이다. 집 한 채를 사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수차례 나눠 지급하는 시대다. 수익도 아니고 수천억 원의 자산이다. 담당 실무 책임자인 김윤섭 자산개발국장은 “4800억 원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는 사업자는 우리나라에 없다”고 진술했다. 누가 들어도 납득할 수 없는 ‘허언’을 최소한의 사실 확인 작업도 없이 믿고 매각을 종용한 것이다. 그 자체로 무능의 극치다.

### 관리감독 방기하더니 사옥 매각에는 무리하게 개입

정당한 절차도 무시했다. 실무자의 반대에도 “수의계약은 왜 안되냐”며 몰아세웠다. 공공기관은 구매 금액이 수천만 원만 넘어도 공개입

찰을 진행한다. 개별 자산매각에 대해 방문진 이사장이 수의계약을 지시한 건 MBC 사상 초유의 일이다. 실제 주요 자산이 수의계약으로 매각된 전례도 없다. 각종 이권에 달려드는 사기꾼들로부터 MBC의 재산을 지키지는 못할 망정, 한 몸이 돼 엉터리로 팔아넘기려 한 것이다. 방문진의 역할은 MBC의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이다. 자산 매각 하나 하나까지 직접 챙기며 이권을 몰아주라는 게 아니다. 심각한 경영 개입이자, 배임이고 이사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행위다. 기자와 PD, 아나운서 등 2백여 명의 조합원들이 부당징계를 당할 때는 정작 관리·감독의 영역이 아니라며 눈을 감던 고영주 이사장이, 수천억 원의 자산 매각에는 깊숙하게 개입해 특정인을 챙기려 했다. 여의도 사옥은 MBC의 생생한 과거이자, 미래다. 신원부터 모든 행적이 정체불명인 하 씨의 이 거래로 ‘최소 3천억 원의 이윤을 낼 수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고영주 이사장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 고 이사장이 왜 특정인한테 수천억 원의 자산을 팔아넘기려고 했는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고집했는지, 그 대가로 무엇을 약속 받았는지 수사를 통해 낱알이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 적법한 검사 감독도 거부 ... 적폐 청산의 대상일 뿐

고영주는 자신의 비위를 감추는 데는 적극적이었다. 지난 11일 열린 이사회에서 방문진은 사실상 방통위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고 이사장을 비롯한 구여권 추천 이사들이 끝까지 공개를 반대한 것은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해외출장비 내역 등이다. 관련 업무에 정당하게 썼다면 공개를 꺼릴 이유가 없는 자료들이다. 정권과 한 몸이 돼 배를 불리

던 자신들의 행적이 드러날 것이 두려운 나머지, 방문진법과 민법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된 검사·감독권까지 철저히 몽개버린 것이다. 앞서 지난달 방문진은 김장겸 체제를 연명하기 위해 법에 명시된 ‘2016년 MBC경영평가 보고서’마저 폐기해 버렸다. 본연의 업무도 내팽개치고, 각종 법을 우습게 여기며 검사·감독도 거부하는 방문진은 더 이상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 그 정점엔 고영주가 있다. 방문진 정상화, 나아가 MBC정상화의 첫 단추가 고영주 이사장의 해임이라는 것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



### 애초부터 부적격 인사 ... 서둘러 해임해야

이제 지체할 시간이 없다. 방문진을 극우들의 놀이터로 전락시키고 “문제인은 공산주의자”라며 막말을 서슴지 않은 고영주 이사장은 애초에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다. ‘고영주 방문진’ 체제에서 공영방송 MBC의 신뢰도와 공정성은 끝을 모르고 추락했다. <영상기자 블랙리스트>, 국정원의 <MBC 언론장악 문건>이 충실히 실행될 때도 관리·감독은 커녕 이를 감싸는데 급급했다. 실력 있는 기자와 PD, 아나운서는 스케이트장, 신천교육대로 떠돌고 있을 때도 고영주는 조합원들을 ‘유유인력’ ‘잔여인력’으로 비하하면서 조직문화를 말살했다. 청렴함 하고도 거리가 멀다. 지역사 사장에게서 회사 공금으로 골프 접대를 받고 한우 선물세트를 받아 쟁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급기야 MBC의 소중한 재산을 엉뚱하게 팔아넘기려 했다. MBC 몰락은 지난 10년간 고질적인 불공정 편파 방송을 일삼은 경영진과 이를 방치한 방문진의 합작품이다. 그 중심엔 항상 고영주 이사장이 있었다. 서둘러 끝내야 한다.





# 전영배, 적폐와 부역의 시작



MB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0일 전영배 MBC C&I 사장을 전격 소환 조사했다. 국정원의 MBC 장악 시도와 관련해 국정원측과 접촉했는지, 논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집중 추궁한 결과로 전해졌다. 전 사장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지만,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조사 직후 그를 전격 소환한 점으로 미뤄, 그가 국정원의 MBC 장악 시도와 관련된 핵심 내부자라는 진술이나 단서를 확보한 결과로 보인다.

실제로 그는 MB 정부 시절 MBC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09년 MBC 보도국장을 지냈고 김재철 전 사장이 재임한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기획조정실장, 보도본부장, 특임이사 등을 지냈다. 이런 배경에,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에 깊숙이 개입한 걸로 알려진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항상 거론됐다. 이 전 수석과 전영배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같은 대학 같은 과 동기다. 당시 권력에 줄을 대 자리를 차지하고 그 대가로 충성을 바쳐온 대표적인 인물로 지목됐던 전영배는, 하는 일마다 내부 구성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9년 보도국 기자들의 제작거부 사태다. 당시 전영배 보도국장은 뉴스데스크를 진행하던 신경민 앵커를 하차시켰다. 보도국 기자들이 앵커 교체에 반대하며 제작거부에 돌입했지만 전영배는 교체를 강행했다. 기자들은 전영배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실시했고, 전영배는 MBC 사상 처음으로 기자들의 불신임으로 경질된 보도국장이 됐다.

2012년 보도본부장 시절엔 비판적인 보도가 축소되거나 누락되고, 정권 우호적인 기사들이 확연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조합원들이 공정방송 사수를 외치며 170일 파업에 나섰던 배경에도 그가 대책점에 있었던 것이다. MBC C&I 사장에 취임하자마자 한 일 역시 이상호 기자의 '손바닥TV' 폐지였다. '손바닥TV'가 BBK 관련 내용을 다루려 하자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

이렇듯 그는 MBC 적폐의 시작이었다. 한 줌 권력을 쥐고 뉴스에 분탕질을 일삼았던 그의 행적은 국정원의 'MBC 장악 문건'과 시점이 교차한다. 느닷없이 신경민 앵커를 교체한 것도 진행자 교체까지 시시콜콜 주문한 국정원 문건 내용과 빼닮았다. 전영배는 국정원의 MBC 장악 시도를 도운 '엑스맨'이자, 김재철부터 김장겸에 이르기까지 MBC를 망가뜨린 부역 체제의 '선봉장' 격이다. 극악무도했던 MB 정권의 언론 장악, 그 열쇠를 쥔 전영배의 추악한 만행들을 검찰은 더욱 강력한 수사로 날날이 파헤쳐야 할 것이다.

# “김현종 · 김철진도 물러나라”



지역사 낙하산 사장들에 대한 퇴진 투쟁이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기행' 송재우 춘천MBC사장과 '중동 뉴스' 이진숙 대전 MBC 사장에 대한 지역MBC 조합원들의 퇴진 투쟁은 총파업 돌입 전후 김일곤 경남MBC 사장과 심원택 여수MBC 사장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김일곤 사장은 진주와 창원의 강제 합병과 노조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고, '타고난 일베' 심원택 사장은 최근 전두환 찬양 발언이 전해지면서 퇴진 투쟁 열기에 기름을 붓고 있다.

여기에 충격적인 국정원 'MBC 장악 문건'이 드러나면서, 김현종 목포 MBC 사장과 김철진 원주MBC 사장이 추가로 퇴진 대상 목록에 올랐다. 두 사장은 과거 MBC 시사제작국장이나 편성제작본부장 등을 지내면서, PD수첩 제작진들을 강제 발령시키고, MB 정권에 비판적인 아이템들을 검열하거나, 작가진·출연진들을 몰갈이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시사교양국 해체를 방조한 책임도 있다. 국정원의 MBC 장악문건에 나온 지침 그대로를 실

행한 셈이다.

이로써 낙하산 사장 퇴진 투쟁을 벌이는 지부는 지역사 17개 지부 가운데 춘천, 대전, 여수, 경남, 원주, 목포 등 6곳으로 늘어났고, 다른 지부로 더욱 확대될 조짐도 있다. 해당 지부는 낙하산 사장 출근 저지 투쟁과 더불어 거리 선전전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현재 서울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지역MBC 사장 선임 구조 개선책 마련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MBC본부 도진협 수석부위원장은 “낙하산 사장들은 김재철, 김종국, 안광한, 김장겸으로 이어진 현재의 MBC 체제에서 공영방송인의 책무를 망각하고 MBC를 권력의 시종으로 전락시키는데 동조했던 인물들로 평가받고 있다”며 “MBC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